

## 후두현수내시경술 중 현수압력의 연속측정-예비보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권택균·공일규·성명훈·김광현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후두질환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수후두경 검사의 현수압력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후두 노출 및 현수검사 후 합병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예측의 지표를 추정함에 있다.

### 방법:

0~15 kg의 범위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센서를 현수장치의 흉곽 지지대에 장치하여 1 Hz의 빈도로 연속적인 압력측정을 하였다. 후두직달경과 흉곽지지대 사이의 연결 장치의 양단에 형성되는 각도를 측정함으로써 환자의 구인두에 가해지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실험으로 10건의 후두미세수술에 본 계측을 시행하였으며 후두직달경은 Rudert type glotticoscope을 사용하였다.

### 결과:

후두미세수술 전 과정 동안 안정적인 현수압력을 측정할 수 있었으며 전교련부위를 노출하기 위해 환자의 구인두에 가해지는 압력은 평균 8.5 kg이었으며 수술시간은 평균 24분이었다. 예비실험에 포함된 환자에서는 술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후두미세수술을 위한 현수압력의 연속적인 측정으로 성대노출을 위해 환자의 구인두에 가해지는 압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현수압력의 정량화가 가능하였다.

### 결론:

후두미세수술을 위한 현수압력의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성대노출과 관련된 객관적인 지표의 도출과 술후 합병증의 예방이 가능하리라 예측된다.